

『범세계적인 지적사회의 구축을 향하여 - - 정보통신기반을 위한 국제지침-』의 개요에 대하여

<이 자료는 일본 정보통신저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통신정책국 정책과 西山克弘 -

본 답신은 94년 10월 13일,
우정대신이 「21세기를 전망하며
고도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위한 국제적
제휴의 자책에 대하여」 전기통신심의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본 심의회의 통신정책부회에서
폭넓게 심의하여 모은 것이다.
제목은 『범세계적인 지적사회의 구축을 향하여 -
정보통신기반을 위한 국제지침 -』이라 이름짓고
범세계적 지적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이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에 대해 추구에 나가야 할 과제이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음은 본 답신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1장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의의

1.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을 둘러싼 동향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사회에 관한 G7
각료 회합,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
체),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등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2.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이념

범세계적인 지적사회의 실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정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기본적 인권으로서 「정보발신권」 및 「정보접근권」의 보장, 활동적인 경쟁의 촉진, 문화적·언어적 전통의·존중과 다양성의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정보유통의 촉진」과 「각국 문화의 존중」은 어떤 의미에서 Trade off의 관계에 있고,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에 있어서는 이 두요소의 조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개념

정보통신기반의 계층		실제 적용	국제적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
가치관법질서	제4층	라이프스타일 워크스타일	· 각국의 법·제도 등의 조화 · 정보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의 책정 · 정보 literacy의 함양
교육, 의료, 행정, 산업의 정보화	제3층	적용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Content	· 언어면에서 장애의 극복
정보의 유통시스템	제2층	정보분배기능· 수발신기기	· 단말기기의 상호인증
정보의 물적 전송장치	제1층	네트워크인플라	· 범세계적인 유니버설서비스의 확보 · 각지역의 상황에 따른 미디어의 선택

제2장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정비·고도화

1. 전기통신시장에서의 국제경쟁 자세

전기통신시장의 변화, 전기통신시장의 국제화로의 대응, 국제적인 경쟁정책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기술혁신에의 제도적 대응

새로운 이동체위성통신시스템의 등장 및 새시스템을 둘러싼 검토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 범세계적인 유니버설서비스의 확보

국제통신수단의 다양화, 기술혁신의 신장,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범세계적인 유니버설서비스의 확보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4.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의 확보와 표준화의 추진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의 확보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수발신기기, 정보분배기능,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적 사항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고,

ITU 등에 의한 De jure 표준(공적표준)을 중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De facto 표준(사실상의 표준)과의 공존을 도모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표준화와 지적소유권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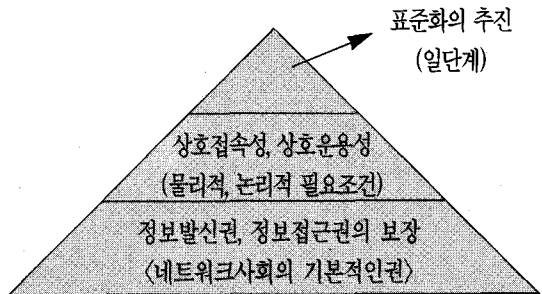


그림1) 정보발신권, 정보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구조

제3장 세계적인 정보통신의 이용촉진

1.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

국제 공동프로젝트의 추진, 인터넷트의 고찰을 통한 비음성계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촉진을 도모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회선사용요금의 문제, 정보 Security의 확보, 인터넷 운용조직의 계획에 참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 다채로운 Content의 국제적인 전개

일본에서의 Content 제작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또, 현재의 영상국제방송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OECD에서의 가이드라인 등은 「쌍방향·디지털·대용량」의 멀티미디어사회에서 정보유통의 국제적인 룰을 만들어가는 試金石이 되는 것이다.

3. 이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저작권의 적절한 확보, 프라이버시의 확보, 정보Security의 확보, 정보literacy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정보Security에 대해서는「네트워크사회에서는 불특정다수와의 정보교환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각종 암호화기술 및 개인 인증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후에 과제로서 암호기술전략에 대한 대응, 공개Key방식의 고속화, Key관리방식의 검토, 전자서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양성 등을 들고 있다.

제4장 국제협력·협조의 추진

ITU, APT의 역할강화, ODA의 활용, 민간베이스 협력의 활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5장 정책적 대응

1. 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정비의 기본적 사고방식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적인 정보통신기반정비의 추진, 새로운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정보발신권」및「정보접근권」의 확장, G7 정보사회회의의 Follow up체제의 충실·강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촉진과 각국문화의 다양성의 존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제안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일본의 정보통신 기반정비를 가속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

네트워크인프라의 정비와 공공적 어플리케이션의 본격적인 개발·도입, 공공기관 네트워크화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선도적 어플리케이션의 전국적인 전개, 신산업창출에 관련된 미래상상형 연구개발의 선도적 추진,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혁신과 지적으로 왕성한 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나가야한다고 한다.

또, 새로운 이용환경의 정비로서 기술혁신에 대응한 정보통신의 이용에 걸친 제도의 정비, 재해등 비상시에도 기능을 발휘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보전달체제의 정비, 사회적 약자에 배려하는 정보통신서비스나 기기의 개발·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충실을 도모하기위한 시책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재육성, 인재교류등을 하기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원거리교육 등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가상대학(Multimedia Virtual University)를 창설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판 NREN 구축,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계획의 추진, 多언어간의 자동번역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